

말투·표정에도 흔들리는 표심... ‘TV 토론’ 새 변수 부상



국방안보 1000인 외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보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안, 강원 표심 공략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6일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 인근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펼치며 청중들에게 두 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검증시간 짧아 영향력 커져... 지지율 등락·후원금도 여파 유권자 20~30% “토론 후 지지후보 바꾸고 싶어졌다”

주요 5명의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TV토론이 유권자 사이에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들은 26일까지 4차례의 토론을 소화했고, 28일과 다음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두 번의 토론을 남겨졌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토론에서의 말투·태도·인상 등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확산, 이슈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5명이 일어난 채 토론하거나 원고 없이 공방을 주고받는 등 과거 대선토론과는 다소 달랐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표현이 쓰이거나 거친 신경전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 정제된 방식의 토론보다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TV토론 후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지지율 오차범위 내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해 왔으나 세 번의 토론 후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물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모두 토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

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토론회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5%를 밑돌다가 10%를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또 당원 가입과 후원금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심 후보가 토론회에서 진보정당 후보로서 가진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각종 정점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TV토론과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보다 TV토론에서 두각을 보였다. 평가에도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유권자가 토론을 보면서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외면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후보들이 남은 TV토론에 사활을 거는 것은 갈수록 늘어난 부동층과 사표방지 심리를 잡기 위해서다. 조선일보의 지난 14~15일 조사(103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3.1%포인트)에선 응답자의 30.8%가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21~22일 조사에선 이 비율이 34.0%로 높아졌다. 중앙일보의 23~24일 여론조사(2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2.2%포인트)에선 응답자의 20.4%는 TV토론을 시청했거나 뉴스를 접한 뒤 지지후보를 바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지난 15~16일 조사에서 이 비율은 10.6%였다.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최명길 부부 안지원 호남 등판

무안·해남·완도·광주 유세

백의중군을 선언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선 국민의당 소속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광주와 전남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친문(親文) 패권 정치를 비난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인인 탤런트 최명길씨와 광주를 찾아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송정역 1913 시장 등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김 전 대표는 유세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패권정치와 민주당의 친문 패권이라는 양대 패권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후보가) 자기들의 패권적 폐쇄 청산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적폐만 청산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염치없는 짓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지낸 안철수·김한길, 손학규, 김종인 등이 모두 견제하지 못하고 쫓겨날 만큼 민주당의 친문 패권주의는 강고하다”며 “당대표를 흔

들고 당을 좌지우지해 상대 당보다 더 무서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이뤄놓은 업적·성과가 없다”며 “친문패권을 더 튼튼히 만든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서 실장이었기 때문에 (패권세력이) 간판으로 내세워) 대통령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분명하게 목표의식과 신념을 지닌 사람이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부부는 이날 송정역 1913 시장 집중 유세에 이어 기아랜드 피언스필드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안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무안군 일로읍 5일장, 해남 5일장,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장 등 전남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종인 따라 민주 탈당 최명길 오늘 국민의당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머물러있던 최명길 의원이 27일 국민의당으로 입당한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을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며, 민주당 의원 중 국민의당으로 옮겨온 것은 지난 6일 입당한 이언주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최 의원의 경우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 의원의 이번 입당을 계기로 김 전 대표 역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은 토론 후보별 전략은

TV토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은 그동안의 토론회 내용에서 장단점을 분석, 오는 28일과 내달 2일로 예정된 남은 토론회 전략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6일 그동안의 토론회에 대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특히 전날 토론회에 대해 외부에서 문 후보의 태도가 지나치게 ‘고압적’이었다는 공세가 이어지면서 남은 토론회에서는 지나친 강경대응을 자제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文, 국정운영 안정감 부각

安, 미래 비전 중점 토론

洪, 文·安 비판 기초 유지

劉, 정책중심 전문가 이미지

沈 ‘국민의 삶 개선’ 강조

선대위 홍의표 수석대변인은 “문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균형감과 안정감”이라며 “이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날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3차 TV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갑철수’ ‘MB 아바타’ 등 민주당 측의 네거티브 거론이 오히려 안 후보에게 해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전날에는 정책 중심의 토론을 주도하면서 장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남은 토론회는 미래 비전에 중점을 둔 토론을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에 개의치 않고 그동안 이 토론회 기조였던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안 후보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여 안 후보 쪽으로 흘러간 보수층의 지지를 되돌리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보수층이 무탈 경우 문 후보와 양강구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유 후보가 그동안의 토론회에서 토론 잘하는 경제전문가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담 일자리 공약에 대한 비판은 날카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유 후보는 정책 중심의 토론을 통해 실력 있는 대선후보 이미지를 강조할 생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의 토론회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덕분에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후원금도 답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진보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